

어린이 책꽂이

▲금순아 노을자=차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 금순이와 손녀딸 연우,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가족들의 이야기. 가족은 맘에 들지 않고 부족하더라도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 행복한 존재라는 진리를 일깨운다. <침비·9천원>

▲연표를 알면 역사가 쉽다=우리 역사가 시작될 시점부터 현재까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연표로 중심으로 100여개의 사건을 뽑아 시간적 순서로 배열했다. 중요한 역사적 인물들을 직접 찾아가 인터뷰 하는 등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췄다. <애플비·8천800원>

▲지도로 만나는 한발 한발 세계사=인류탄생의 선사시대부터 21세기 현대시대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구 곳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뤘다. 각 시대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는지 세계지도위에 펼쳐 동서양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구성했다. <뜨인돌 어린이·1만2천원>

▲인간의 오랜 친구 미생물 이야기=세균과 바이러스, 진드기, 벼룩, 거머리 등 각종 생물과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흥미롭게 설명했다. 미생물의 신비로운 세계를 통해 다른 생명체들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일러준다. <웅진주니어·8천500원>

▲노란 궁전 하몽공주=매일 하몽을 하는 공주가 어느 날 기적처럼 하몽을 그치게 된다는 내용의 그림책. 과연 공주는 어떻게 하몽을 멈추게 되었을까. <소년한길·9천원>

남녀관계 수수께끼 유전자로 풀다

정자에서 온 남자... 조퀴크 지음

“왜 남자들은 처음 몇 마디를 나누기가 무섭게 나를 교묘히 참대로 끌어들이고 생각만할까.” 남성과 여성은 성별의 차이만큼 성에 대한 인식의 격차도 하늘과 땅 만큼 대척점에 있다. 도대체 왜 남자들은 여성들만 보면 영문(?)한 생각만 할까. 이 문제에 대해 진화생물학자들이 내린 답은 간단 명료하다. 정자와 난자 때문이라. 여성과 한번 잠자리를 갖는 데 무려 3억개의 정자를 방출하는 남성은 최대한 많은 여성과 관계를 통해 번식전략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반면 여성은 난자 한개를 생산하는데 29.5일이 걸리는 데다 성관계를 통해 임신, 자녀 양육 등 무한한 유전자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진화생물학 연구자인 조퀴크는 ‘정자에서 온 남자 난자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통해 서로 이질적인 존재인 여자와 남자의 차이를 진화생물학적 관



이질적인 성별을 갖고 있는 남·녀의 성에 대한 인식이 발생하는 것은 서로 다른 유전자의 특성과 진화생물학 등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영화 ‘프리미 러브’.

점에서 풀어내고 있다. 적잖은 남성들이 부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헌신적으로 대한다고 믿고 있으나, 정자는 태생적으로 여성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 장기간 집을 비운 남성의 경우 정자의 생산량이 평소보다 30% 가량 증가한다. 여성의 몸에 침입한 또 다른 정자와 싸우기 위해서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정자가 미식축구 선수처럼 난자와 만나야 하는 주장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증원군을 늘린다는 것이다. 진화생물학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영장류 수컷의 고환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제각기 이외의 상대와 비람을 피우는 생의교미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본다. 결혼상태를 까다롭게 고르는 여성들의 심리에 대한 힌트는 히말라야 원숭이 암컷에게서 얻을 수 있다. 히말라야 원숭이는 본능적으로 무리의 우두머리를 차지하는 어린 수컷을 알아본다는 것이다. 이는 장차 태어날 새끼들의 생존을 보장해줄 음식을 제공할 수컷을 알아보는 능력이 발달된 결과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M.버스가 37개 문화권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여성들이 하나 같이 장래 배우자감의 지위와 경제력을 첫째로 꼽은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남녀가 사랑을 할 경우 남자가 ‘육체’에 끌리는 반면, 여성은 냄새에 매혹된다. 성호르몬인 ‘페로몬’은 냄새가 없지만 여성들의 후각이 본능적으로 감지하기 때문에 남성에게 끌린다고 한다. 실제 여성들의 불규칙한 생리를 치료하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남자의 겨드랑이에 코를 바고 냄새를 맡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연구가 10여건이 넘기도 한다. 남성들이 상징물의 크기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여성들과 관련이 있다. 자신의 존경을 퍼뜨리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선택이 필요충분 조건이기 때문이다. 포식자에게 노출되기 싫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크고 화려한 꼬리를 점점 더 진화시키는 공작이 좋은 사례다. 저자는 이처럼 자신의 경험담을 비롯해 사회생물학, 문화인류학, 동물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남녀의 성행동과 심리, 남녀의 인체 구조 등 여성과 남성의 신비스럽고 흥미로운 차이점을 설명한다. <해냄·1만2천원>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임기

카잔차키스 ‘그리스인 조르바’

“조르바, 말해줘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여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어지는 날이 있다. 저녁이 될 때까지 커튼을 닫아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아침 공기를 들이켜고 싶지 않을 때, 오늘 하루도 시작이구나라고 중얼거리고 싶지 않을 때 말이다. 그런 순간엔 누구에게나 예고도 없이 ‘문득’ 다가온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중얼거린다. ‘아, 오늘 나는 혼자 있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는 이불속에 누워 내가 사랑하는 소설 속 인물들을 불러내 본다. 가령 ‘피르소’라면 지금 내게 뭐라고 말했을까? 라든가, ‘빌리 필그림’은 날 보고 비웃겠지 라고 생각해보는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사람은 ‘조르바’이다. 나는 천장을 보고 이렇게 말하곤 한다. “조르바 아저씨,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러면 어김없이 조르바는 이렇게 소리친다. “양고기가 솟아 되어 버릴라.” 모든 것이 끝났나 뒤에 조르바가 외친 그 한마디. 나는 조르바를 따라 타지 않도록 양고기를 뒤집고, 빵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따르고, 그리고 춤을 추고 싶어진단다.

나는 누구든지 아름다운 순간들을 머릿속에 담고 살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까닭 없이 아침이 싫어지는 어느 날, 그 장면들을 꺼내어 보아야 한다고, 내가 좋아하는 장면은 조르바가 말이 안 통하는 러시아 친구와 춤으로 대화를 하는 부분이다. “나는 내

‘인생의 참맛’ 일깨워 줬



불행은 춤으로 추었습니다. 내 권력을 말합니다. ... 내 발, 내 손이 말을 했고, 내 머리카락, 내 옷도 말을 했지요. 허리에 차고 있던 나이프까지 말을 했어요.” 조르바는 춤을 추고 러시아 친구는 조르바의 춤으로 조르바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 마찬가지로 러시아 친구가 춤을 추면 조르바는 그 친구의 인생 역경을 이해한다. 나는 이 장면을 언제 어디서나 꺼내 보곤 한다. 낯선 여행지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도중, 나는 조르바가 춤을 추는 것을 본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눈앞의 광경이 환해졌다. 말이 통하지 않는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의 주름살까지도 설명하게 내 가슴에 박혔다.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사다 말고도 나는 조르바가 춤을 추는 것을 본다. 그러자 모든 물건들이, 삼분카나 햇반이나 아이스크림들이, 제각기 말을 걸어온다. 우리 모두는 자기만의 미로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가슴속도, 머릿속도 미로이다. 우리에게 거짓말의 세계가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미로 때문일 것이다.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합리적인 구조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일이 하나도 달려있지 않은 나무 옆에 노란 은행잎이 무성히 나무가 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길을 잃을지도 모르는 미로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펼쳐져 있다. 우리에게는 그 미로를 헤매 자유와 용기가 필요하다. 그걸 내게 일러준 사람이 바로 조르바다. “그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세계는 자꾸 커지는 기분”이 드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는 자유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니까. 조르바를 미워하는 일은 힘들다.

이 책을 한번만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조르바는 말한다. “나는 가장 위험한 경사 길에서 브레이크를 풀어 봅니다. 인생이란, 가파른 경사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는 법이지요. 잘난 놈들은 모두 자기 브레이크를 씩습니다.” 스스로 브레이크를 버린 사내, 조르바. 그는 자기 삶의 존중하는 법을 나에게 알려준다. <소설가>



‘클래식 전도사’가 풀어 쓴 오페라 감상법

...오페라를 본다 박종호 지음

다양한 클래식 음악 중 오페라는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장르로 꼽힌다. ‘박종호에게 오페라를 본다’는 이미 ‘내가 사랑하는 클래식’ ‘불멸의 오페라’ 등을 통해 ‘클래식 전도사’로 명성을 얻고 있는 정진과 전문의 박종호씨가 알기 쉽게 풀어 쓴 오페라 감상의 길라잡이다. 책은 여자친구와의 데이트에서 처음으로 오페라를 접한 20대 남성이 오페라 전문가를 만나 궁금증을 하나 하나 묻고 답을 듣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오페라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오페라 가수의 목소리는 어떻게 나뉘는지 등에 대한 것 뿐 아니라 오페라 관람 갈 때의 복장과 준비물 등에 대해서도 친절히 답해준다. 책 말미에 ‘라 트라비아타’ 등 ‘박종호가 추천하는 당신의 첫 오페라 10편’과 ‘다음 단계의 오페라 25편’을 부록으로 실었다. <시공사·1만2천원> /김미기자 mekim@kwangju.co.kr



‘설렘’을 소중한 보약으로 삼는 77세 우타코

두근 두근 우타코씨 세이코 지음

일본인 이누노 잇신 감독의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의 원작 소설 ‘조제와 호랑이와 물고기들’(작가정신)을 쓴 다나베 세이코가 신작 소설 ‘두근 두근 우타코씨’를 출간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섹스’가 사람에게 가장 좋은 보약이라는 데는 공감할 수가 없다. 그보다 이 ‘설렘’, 이것을 소중한 보약으로 삼고 싶다”고 생각하는 소설의 주인공은 감성 가득한 여고생도 아닌 77세의 우타코. 스스로를 ‘골든 에이지’라 말하는 우타코는 첫사랑과의 만남을 통해 가슴 떨리던 기억을 떠올리고, 우연히 참석한 합동 맞선 자리에서 연가가 되기도 한다. 노년소설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유머러스하며 유쾌한 반전이 돋보여 최근 출간된 소설가 박완서의 ‘친절한 복희씨’(문학과지성사)를 떠올리게 한다. 7개의 에피소드가 묶여있다. <여성신문사·9천800원>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Megabox, Enter Cinema, Columbus Cinema, Seniors Cinema, and Mudeung Grand. Includes movie listings, showtim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each theater.